

이슈브리프

No. 2026-10

시진핑의 군 고위급 숙청: 정치·군사적 함의와 시사점

이동규 연구위원

김지연 연구원

2026-02-27

2026년 1월 24일 중국 국방부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이하 중앙군위) 장유샤(張又俠) 부주석(이하 장유샤)과 류전리(劉振立) 중앙군위 위원(이하 류전리)이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을 이유로 조사받고 있다고 발표했다.¹ 아직은 조사 대상이지만, 과거 중국의 군 숙청 과정에서 조사 대상이 직무정지 및 해임으로 이어진 점을 고려할 때, 장유샤와 류전리가 숙청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하 시진핑)이 3기에 단행해 온 군 고위급 숙청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군의 2인자이자 시진핑의 최측근인 장유샤에까지 이른 군 고위급 숙청은 중국의 정치 및 군사 변동을 예고한다. 정치적으로 군 부대의 파별이 약화되고 시진핑의 군 장악력이 강화되면서 시진핑의 4연임을 넘어 그 이후에도 정치 영향력 유지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숙청으로 인한 군 지도부 공백 때문에 중국군이 2027년 전후로 대만에 대한 전면 침공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진핑 개인의 정치적 의지가 중국군의 인사 및 조직 개편, 군사 전략, 전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중국군의 군사 현대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과정에서 현장 부대 지휘관들의 충성 경쟁, 시진핑 개인의 오판 위험성, 중국 군사의 불예측성이 증가함으로써 지역 안보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한국 주변 해·공역에서 중국군의 군사 훈련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중 간 군사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 정부와 군은 대만해협뿐만 아니라, 서해 및 한국방공식별구역(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에서 중국군의 군사 훈련, 혹은 회색지대 전술이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 한국의 군과 해양경찰 간의 상황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우발적 충돌 시나리오를 세분화해 대응 규칙과 현장 매뉴얼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서해, 동중국해, 대만해협에서의 중국군 훈련 범위를 고려해 한미일 안보협력 과정에서 중국군의 인사, 훈련, 전력 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상 징후에 대한 공동 평가와 위기관리 조정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역할 및 임무 범위가 확장되더라도 한국의 우선순위가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및 주변지역 안정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이 대중 견제에 전면 참여한다는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

시진핑 3기 중국의 군 고위급 숙청 평가

1. 시진핑의 '강군몽'과 군 부패

시진핑은 집권 이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의 핵심이익 수호'를 위해서 '강군몽(強軍夢)'을 주창하며 군사 현대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2015년 시진핑은 핵미사일 발사를 담당하던 제2포병 부대를 로켓군으로 개편하여, 육·해·공군에 이은 중국군의 정식 군종으로 격상시켰다. 2016년 시진핑은 인민해방군 7개 군구(軍區)를 5개 전구(戰區)로 개편하고 육군 중심의 군체계를 육·해·공·로켓군의 합동전투체계로 전환하고자 했다. 이후 29개 여단이었던 로켓군은 2019년도에 이르러 39개 여단으로 확대되며 크게 발전했다.²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군사 지능화(軍事智能化: military intelligentization)'를 강군몽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중국의 첨단기술과 군사 영역의 연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시진핑은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마치라고 중국군에 지시하며³ 군사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

그 과정에서 군부 부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2년 10월 미 공군대학 중국항공우주연구소(CASI)의 “인민해방군 로켓군 조직(PLA Rocket Force Organization)” 보고서는 중국 로켓군의 조직 구성, 각 부대의 위치, 배치 미사일 종류 등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 누설에 대해 시진핑이 크게 분노했다고 알려졌다.⁴ 또한, 2024년 1월 블룸버그(Bloomberg)는 중국 미사일 격납고의 장비 문제로 미사일 발사가 불가능하다는 등 여러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중국 로켓군의 부패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지적했다.⁵ 2023년 7월 중앙군위 장비발전부는 시진핑 2기가 시작됐던 2017년 10월 이후로 군 장비 조달 및 입찰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공지했는데,⁶ 이는 중국 정부가 시진핑 집권 시기 발생한 군 부패 문제에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군에 대한 불신으로 군 장악력 확대

시진핑 3기 군 고위급 숙청이 이어지면서 일부 언론에서 시진핑 정치 권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군의 2인자인 장유샤가 시진핑 측근을 숙청했는데, 이에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시진핑의 정치 권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2025년 5월 이후 언론에 확산된 ‘시진핑 실각설’의 논리이다. 또한 이번 장유샤 숙청에 대해서도 시진핑과 장유샤 간의 권력투쟁설, 장유샤의 군사기밀 유출설 등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다.⁷ 중국 정치와 군의 폐쇄성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알기 어렵지만, 시진핑 3기 이후 시진핑의 통치 방식과 중앙군위 숙청 과정을 고려할 때, 여기에는 시진핑과 중앙군위 파벌 간의 권력투쟁보다 군에 대한 불신으로 직접 군 개혁을 추진하려는 시진핑의 의도가 크게 작용했음을 볼 수 있다.

시진핑 1~2기에 숙청된 장군이 160여 명에 달하는데, 대부분 장쩌민 전 주석 계열로 알려졌다.⁸ 즉, 이 시기 시진핑의 군부 숙청은 정적을 제거해 군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하에 시행됐다. 그러나 시진핑은 2022년 10월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이 구축한 정치적 관례를⁹ 깨고 3연임을 시작했다. 시진핑이 속한 ‘태자당(太子黨)’의 경쟁 파벌로 알려진 중국공산주의청년단(共產主義青年團)의 쇠퇴, 중국 최고 권력기구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측근인 시자진(習家軍) 대거 등용, 불명확한 후계자 구도 유지 등을 통해서 시진핑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위계질서를 수립했다.¹⁰ 시진핑 1인 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공산당 내에서 시진핑을 견제할 세력과 수단이

크게 위축되었고, 시진핑은 측근 간의 권력 투쟁을 유도하며 자신의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 서열 5위인 차이치(蔡奇)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를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中央全面深化改革委員會) 부주임에 임명하면서 서열 2위인 리창(李強) 총리와의 상호견제 구도를 만든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¹¹

중앙군위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시진핑 3기 중앙군위 위원들은 모두 시진핑 측근으로 마오화(苗華) 중앙군위 위원과 허웨이둥(何衛東) 중앙군위 부주석은 푸젠방(福建幫), 장유샤와 류전리는 산시방(陝西幫), 리상푸(李尚福) 국방부장은 군공방(軍工幫)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군 내부 파벌을 골고루 임용함으로써 군 내부에 파벌 간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통제하고자 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023년 군의 부패 문제가 부각되면서 중앙군위 위원에 대한 시진핑의 숙청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2023년 로켓군 숙청 과정에서 로켓군 사령원을 역임한 웨이펑허(魏鳳和) 국방부장과 전략지원부대 부사령원이었던 리상푸 등 대규모의 군 고위급이 조사를 받고 숙청됐고, 리상푸의 후임으로 푸젠방의 동진(董軍)이 국방부장으로 선출됐다.¹² 2024년 마오화와 허웨이둥이, 2026년 1월에 장유샤와 류전리가 숙청되면서 군 내부의 파벌이 차례로 약화되었고, 중앙군위에는 시진핑과 장성민(張升民) 중앙군위 부주석 2명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시진핑은 3기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측근들로 중앙군위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 내 파벌에 대한 숙청을 번갈아 진행하면서 군부 내 파벌을 약화시켜왔다. 그것이 군 부패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시진핑 3기에 시행된 시진핑의 군부 숙청은 군에 대한 시진핑의 불만과 군 개혁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며 군사 현대화를 추진했던 시진핑의 입장에서 군의 부패 문제는 곧 군의 작전수행능력과 전투력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을 초래했을 것이다. 즉, 시진핑의 군 고위급 숙청은 시진핑과 군부 파벌 간의 권력투쟁이나 시진핑의 군 통제력 문제가 아니라 군에 대한 시진핑의 불신과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결과인 것이다.¹³

[표 1] 시진핑 3기 중앙군위 숙청 일지

성명	직위	과정	사유	비고
리상푸	국방부장	- 중앙군위 기율위·감찰위, 조사 시작 (2023.08.31.) - 국무위원 및 국방부장 면직 (2023.10.24) - 당적과 군적 박탈 육군 대장 계급 취소 (2024.06.27) - 전국인대 대표직 파면 (2024.07.11.)	인사 개입, 금품 수수, 군수 조달 부패	군공방
웨이핑허	국방부장	- 중앙군위 기율위·감찰위, 조사 시작 (2023.09.21.) - 당적과 군적 박탈, 로켓군 대장 계급 취소, 전국인대 대표직 파면 (2024.06.27.)	인사 개입, 금품 수수	군공방
마오화	중앙군위 위원	- 국방부, 직무 정지 및 조사 진행 (2024.11.28.) - 전국인대 대표직 파면 (2025.03.14.) - 중앙군위 위원 면직 (2025.06.27.) - 당적과 군적 박탈 (2025.10.17.)	직무 범죄, 부정 부패	푸젠방
허웨이둥	중앙군위 부주석	- 당적과 군적 박탈 (2025.10.17.) - 중앙군위 부주석 면직 (2025.10.28.) - 전국인대 대표직 파면 (2025.12.27.)	직무 범죄, 부정 부패	푸젠방
장유샤	중앙군위 부주석	- 국방부, 조사 결정 발표 (2026.01.24.)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	산시방
류전리	중앙군위 연합참모부 참모장			산시방

※ 중국 정부 발표를 참고해 저자 작성

군 고위급 숙청의 정치적 함의: 견고한 시진핑의 정치 권력 과시

2026년 1월 24일 해방군보(解放軍報)는 장유샤와 류전리가 '중앙군위 주석책임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장유샤와 류전리 숙청이 부패에 대한 승리임을 언급했다.¹⁴ 중국이 이번 장유샤 숙청 과정에서 기존의 부패 혐의를 넘어 '중앙군위 주석책임제 훼손'이라는 군지휘체계를 거론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군에 대한 시진핑의 절대적 권한과 지위를 확인하는 동시에, 자신의 측근이라도 가차 없이 숙청함으로써 군 부패 문제를 뿌리 뽑고 강군 건설을 실현할 것이라는 시진핑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이를 필두로 최근 중국 관영매체는 숙청 정당성과 시진핑의 정치적 권위를 연이어 선전했다. 이어서, 중앙군위는 2026년 1월 25일 "군대 당조직 선거 업무 규정(軍隊黨組織選舉工作規定)"을 발표했다.¹⁵ 파벌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절차 표준화와 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¹⁶ 강화를 강조하지만, 장유샤에 대한 조사가 발표된 다음 날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시진핑이 군 고위급 숙청 국면에서 군내 당조직 선출과 대표 선발을 장악함으로써 파벌을 억제하고 군에 대한 시진핑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마오쩌둥(毛澤東)은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다. 과거 덩샤오핑(鄧小平)은 국가주석직을 맡지 않았지만 중앙군위 주석직을 역임하며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로 활동했다. 장쩌민(江澤民)은 2002년 후진타오(胡錦濤)에게 중국공산당 총서기직을 물려준 후에도 2004년 9월까지 중앙군위 주석직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시진핑이 중앙군위와 군대를 장악하는 것은 자신의 4연임 및 그 이후 정치 영향력 유지를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한, 시진핑은 2027년에 4연임을 추진할 것이다. 시진핑은 4연임으로 자신의 정치 생명을 마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군에 대한 통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시진핑의 정치권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어도 결국 1인 체제의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다. 시진핑 개인의 시대 인식과 정치적 야망에 의한 정책적 폐단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군 고위급 숙청의 군사적 함의: 강군몽 가속, 그리고 지역 불안정성 확대

시진핑의 군 고위급 숙청으로 중국군 지도부의 공백이 발생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중국군 지휘체계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군 부대의 불안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군은 새로운 지휘부가 구성되기까지 새로운 작전이나 군사 전략을 모색하기보다 기존의 정례훈련과 회색지대 전술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 상황에서 일사불란한 합동작전이 어렵기 때문에 2027년을 전후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전면 침공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시진핑 개인의 정치적 의지가 중국군의 인사 및 조직 개편, 전투력, 군사 정책에 직접적으로 투사되면서 중국의 군사 현대화가 가속될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能打勝仗)' 군대를 요구해온 만큼, 시진핑은 군 개편 과정에서 합동전투체계로의 전환, 중국군의 현대전 수행 능력 제고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또한 시진핑에 충성하는 인사를 중심으로 지휘체계가 구성됨에 따라 시진핑 개인의 정치적 결단이 중국의 군사 작전 설계와 시행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시진핑의 정치적 결단이 대만 침공 등 중국의 전격적인 군사 작전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충성 중심의 인사 재편이 진행될수록 정책 결정자가 받는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진핑 개인의 오판 위험성과 중국 군사의 불예측성이 증가하고 지역 안보환경이 불안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우위 유지를 위해 한국, 일본 등 역내 미 동맹국들의 역할과 기여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중국군의 변화는 역내 국가 간 상호 불신을 야기하고 군사적 대립과 충돌로 발전될 위험도 있다. 시진핑의 정치적 야망에 따라 중국군은 대만 내 독립세력을 압박한다는 명목으로 대만해협에서의 군사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군사 활동이 단순한 시위에 그치지 않고 중국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대만해협 봉쇄를 넘어 제한적 타격과 같은 고강도 군사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동시에, 중국 외교에서 나타났던 이른바 '전랑외교(戰狼外交)'의 행태가 군사 분야에서도 유사하게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현장 부대 지휘관들이 시진핑에 대한 정치적 충성을 입증하기 위해 군사 훈련의 강도와 빈도를 확대하거나 보다 공세적인 전술적 행동을 선택한다면, 이러한 충성 경쟁이 대만해협, 동중국해, 서해 등 한반도 주변 해·공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시진핑의 군 통제 강화와 군사 현대화 추진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확실성과 위기관리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의 시사점

시진핑의 군부 숙청은 군 내부의 부패 척결을 넘어 정치적으로 자신의 장기집권의 토대를 닦고, 군사적으로는 군 지휘체계를 재정비해 군사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시진핑 개인의 시대 인식과 정치적 야망이 중국군의 정책 결정과 작전 수행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지역 불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한국 주변 해·공역에서 중국군의 군사 훈련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군사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서해에서의 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시진핑이 군을 장악하고 군사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주변 해·공역에서 중국군의 군사 훈련 빈도와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현장 지휘관들이 총성 경쟁의 일환으로 한미 연합훈련,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해 한국 주변 지역에서 공세적인 훈련을 벌일 수도 있다. 그 경우 한국과 중국 간에 의도치 않게 군사적 접촉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 정부와 군은 대만해협뿐 아니라, 서해 및 KADIZ에서 중국군의 군사 훈련 혹은 회색지대 전술이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 한국의 군과 해양경찰 간의 상황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우발적 충돌 시나리오를 세분화해 대응 규칙과 현장 매뉴얼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관계 회복을 계기로 '지역 안정과 평화'를 강조하며 중국과 국방·해경·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 채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한중 간에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중국의 군사 현대화 과정에서 시진핑의 정치적 의지가 무기 체계뿐 아니라 군 인사와 작전 운용 등에 직접적으로 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군의 전력 변화 외에 지도부 개편, 전구별 훈련 양상 변화, 대만해협-동중국해-서해 연계훈련, 군에 대한 정치선전 등 운영 방식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서 중국 지도부의 의중, 중국군의 위협 정도를 파악해 나가야 한다. 서해, 동중국해, 대만해협에서의 중국군 훈련 범위를 고려해 중국군의 인사, 훈련, 전력 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상 징후에 대한 공동 평가와 위기관리 조정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역할 및 임무 범위가 확장되더라도 한국의 우선순위가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및 주변지역 안정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이 대중 견제에 전면 참여한다는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

[별첨 1] 시진핑 3기 군 장성 숙청 일지

일시	성명	직위	파면 기관	사유
2023.07.07.	장전중 (張振中)	연합참모부 부참모장 (중장)	중앙군위 연합참모부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
2023.09.26.	뤄홍 (呂宏)	로켓군 장비부 부장 (소장)	로켓군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
	저우야닝 (周亞寧)	제2대 로켓군 사령관(대장)	로켓군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
	리위차오 (李玉超)	제3대 로켓군 사령관(대장)	로켓군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
2023.11.27.	쥬신춘 (鞠新春)	남부전구 해군 사령관(중장)	해군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
2023.11.28.	장위린 (張育林)	장비발전부 부부장 (중장)	중앙군위 장비발전부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
	라오원민 (饒文敏)	장비발전부 부부장 (소장)	중앙군위 장비발전부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
2023.12.04.	딩라이항 (丁來杭)	공군 사령관 (대장)	공군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
2023.12.05.	리찬광 (李傳廣)	로켓군 부사령관 (중장)	로켓군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
2024.01.22.	리즈중 (李誌忠)	중부전구 부사령관 (중장)	육군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
2024.06.06.	덩즈핑 (鄧誌平)	육군 부사령관 (중장)	육군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
2024.11.25.	리펑청 (李鵬程)	남부전구 해군 사령관(중장)	해군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
2024.11.29.	요하이타오 (尤海濤)	육군 부사령관 (중장)	육군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
2025.05.06.	리한진 (李漢軍)	해군 참모장 (중장)	해군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
2025.07.18.	왕즈빈 (汪誌斌)	로켓군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중장)	육군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

2025.07.21.	장린 (張林)	중앙군위 후방(后勤)보장부 부장 (중장)	중앙군위 후방보장부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
	가오다광 (高大光)	병참(聯勤)보장부 정치위원 (중장)	중앙군위 후방보장부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
2025.07.25.	왕춘닝 (王春寧)	무경부대 사령관 (대장)	무경부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
2025.09.15.	위안화즈 (袁華智)	해군 정치위원 (대장)	해군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
2025.09.16.	순빈 (孫斌)	중앙군위 감사국 감사장 (소장)	중앙군위 반공청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

※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보를 참고해 저자 작성
(각 기관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직 파면 결정이 이루어진 일자를 기준으로 함.)

저자

이동규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이다.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정치 전공으로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를, 중국 칭화대학(清華大學)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구분야는 중국정치외교, 한중관계, 동북아안보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일대일로: 보건 실�크로드와 디지털 실�크로드의 확장과 그 함의”, “중국공산당의 정치개혁은 퇴보하는가: 시진핑 시기 당내 민주주의 변화와 지속성”,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략으로 본 시진핑 사상”, “냉전시기 한중관계의 발전요인과 특수성: 1972-1992년을 중심으로”, “개혁개방 이후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연구” 등이 있다.

¹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China, "China probes senior military officials Zhang Youxia, Liu Zhenli for suspected serious discipline, law violations: defense ministry," 2026.01.24, <http://eng.mod.gov.cn/2025xb/N/T/16439139.html>.

² 조선일보, "中 미사일 기지 좌표 보고서 공개... 연임 시진핑에 보낸 美 선물," 2022.11.07,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2/11/07/PRCSRZCURNDS7MZEQU5PXNGV5E/>.

³ 조선일보, "CIA국장 "시진핑,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 지시"," 2022.10.06,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2/10/06/OIU52ZIK7FG6PAD55UJNIOVHSI/>.

⁴ China Aerospace Studies Institute, "PLA Rocket Force Organization," 2022.10.24, <https://www.airuniversity.af.edu/CASI/Display/Article/3193056/pla-rocket-force-organization/>.

⁵ "US Intelligence Shows Flawed China Missiles Led Xi to Purge Army," *Bloomberg*, 2024.01.06,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1-06/us-intelligence-shows-flawed-china-missiles-led-xi-jinping-to-purge-military>.

⁶ "中國軍方征集違規軍事裝備招標行為線索 追溯至2017年," *聯合早報*, 2023.07.29, <https://www.zaobao.com.sg/realtime/china/story20230729-1418702>.

⁷ Amy Hawkins, "Fate of China's top general more likely to do with power struggle than corruption," *The Guardian*, 2026.01.26,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6/jan/26/china-top-general-zhang-youxia-power-struggle-corruption>; Lingling Wei, Chun Han Wong, "China's Top General Accused of Giving Nuclear Secrets to U.S.," *The Wall Street Journal*, <https://www.wsj.com/world/china/chinas-top-general-accused-of-giving-nuclear-secrets-to-u-s-b8f59dae>.

⁸ "China's Military Purge 'Rivals the Cultural Revolution' as Top Generals Vanish," *Vision Times*, 2026.01.19, <https://www.visiontimes.com/2026/01/19/chinas-military-purge-rivals-the-cultural-revolution-as-top-generals-vanish.html>; Lee Chan Hui, "Xi Jinping's Grip on the Military Is Getting Stronger, Not Weaker," *The Diplomat*, 2025.12.04, <https://thediplomat.com/2025/12/xi-jinpings-grip-on-the-military-is-getting-stronger-not-weaker/>.

⁹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이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칠상팔하(七上八下: 67세 이하는 유임, 68세 이상은 은퇴하는 중국공산당의 세대 교체 방식)', '격대지정(隔代指定: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최고지도자를 지정하는 중국공산당 내 권력승계 방식)' 등의 정치적 관례가 형성됐다.

¹⁰ 이동규, "시진핑 3기의 중국 정치: 중국공산당 집단지도체제의 변화와 함의," 아산리포트, 2024.04, pp. 20~26.

¹¹ Guoguang Wu, "Li Qiang Versus Cai Qi in the Xi Jinping Leadership: Checks and Balances with CCP Characteristics?," *China Leadership Monitor*, 2023.08.29, https://www.prcleader.org/post/li-qiang-versus-cai-qi-in-the-xi-jinping-leadership-checks-and-balances-with-ccp-characteristics?utm_source=chatgpt.com.

¹² 등진은 국방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국방부장과는 달리 중앙군위 위원과 국무원 국무위원을 겸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국방부장의 지위가 낮아진 것은 중국군에 대한 시진핑의 불신을 시사한다.

¹³ Jonathan A. Czin and John Culver, "Why Xi Still Doesn't Have the Military He Wants," *Foreign Affairs*, 2025.08.18, <https://www.foreignaffairs.com/china/why-xi-still-doesnt-have-military-he-wants>.

¹⁴ 中國國防部, “解放军报社论: 坚决打赢军队反腐败斗争攻坚战持久战总体战,” 2026.01.24,

<http://www.mod.gov.cn/gfbw/qwfb/16439154.html>.

¹⁵ 中國國防部, “中央軍委印發《軍隊黨組織選舉工作規定》,” 2026.01.25,

<http://www.mod.gov.cn/gfbw/qwfb/16439248.html>.

¹⁶ 민주집중제는 공산당의 조직 운영 방식의 핵심이다. 중국공산당 당장(黨章) 제10조는 민주집중제의 기본 원칙을 개인의 조직에 대한 복종, 소수의 다수에 대한 복종, 하급기관의 상부기관에 대한 복종, 당 전체의 중앙에 대한 복종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공산당원들이 비록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당과 의견차가 있을 경우 개인의 의견을 포기하고 통일된 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집중제는 당의 통합을 위해 '민주'보다 '집중'에 방점을 두고 있다.